

## 필리핀, 전력 산업 및 장비 시장 최근 동향

### □ 전력 산업 현황

- 2000년 현재, 최대 발전량은 12,000MW이나 지속적인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09년까지 총 24,375MW의 발전 설비 확충을 계획중임.
- 발전 에너지 자원으로는 수입 원유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원유 발전 설비의 노후와 Malampo 유전을 통한 천연가스 발전의 증가로 2001년의 13.4 million barrel (MMB)에 달하였던 발전용 원유 소비가 2002년에는 4.4MMB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에는 지열, 수력, 풍력 등의 국내 자연 에너지 자원의 의존도를 높여 원유 수입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임.
  - 필리핀은 1,931MW의 지열 발전 설비를 갖추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지열 발전 국가임.
- 2001년 6월, 전력산업 개혁법 통과로 전력 공급 부분의 구조조정과 National Power Corporation(NPC)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 법안에 따라 송전부분을 제외한 모든 NPC 부분이 민영화되며, 송전부분은 TRANSCO로 이전되어 별도로 민영화되어 이에 따른 민간부분 투자확대가 기대됨.
- 정부의 **Power Development Program(PDP) 2002-2011**에 따르면 향후 발전 시설 확충에 총 148억 달러, 송·변전 시설 확충에 15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이중 민간부분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85%에 달하는 1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 전력 장비 시장 현황과 전망

표1) 전력장비 시장의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sup>e</sup>
수 입 품	583.1	512.3	543.3
국 산 품	533.9	624.7	674.7
가 공 수 출	380.1	252.8	265.4
총내수규모 <sup>*)</sup>	736.9	884.2	952.6

주) 총내수규모: 수입품+국산품-가공수출

자료: www.usatrade.com

- 2001년도 전력 장비 시장은 총 8억 8,420만 달러 규모로, 이중 58%에 달하는 5억 1,230만 달러를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음.  
→ 일본이 전체 수입품 시장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이 각각 13%씩 점유하고 있음.
- 2002년 필리핀 전력 장비 시장은 전년보다 약 8% 증가한 9억 5,260만 달러에 이를 것이며, 앞으로도 향후 2년 간 연간 8%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주된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수입부분은 연간 10%의 성장세가 예상됨.

### 1) 전력 수요의 증가

- PDP 2002-2011에 따라 현재 약 12,000MW 규모의 발전설비 외에 12,375MW의 발전 설비 확충을 계획중임. 이중 2,935MW의 발전 설비 건설이 현재 진행중이며, 추가로 9,440MW의 설비 건설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천연가스 발전(4,650MW), 지열 발전(970MW), 재생 자원 발전(587MW), 화력 발전(920MW), 수력 발전(1,963MW)

### 2) 송·변전 시설 확충

- 늘어나는 발전 능력에 따라 원활하고 안전한 송·변전 능력 유지를 위해, 정부는 Luzon, Visayas, Mindanao 지역을 중심으로 송·변전

시설 확충을 계획중임. 총 10,106 circuit kilometer-kilometer (ckt-kms)의 송전라인과 18,345MVA의 변전 장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Luzon: 4,000ckt-kms의 송전라인과 9,500MVA의 변전 장비
- Visayas: 1,610ckt-kms의 송전라인과 3,650MVA의 변전 장비
- Mindanao: 4,496ckt-kms의 송전라인과 5,195MVA의 변전 장비

### 3) 노후 발전 설비 교체

- 2011년까지 Luzon 지역에서 1,481MW, Visayas 지역에서 423MW 규모의 발전 장비 교체가 있을 예정임.

### 4) 지방 전력공급 확대 계획

- 정부는 총 11억 달러를 투자하여 지방 전력 공급 능력을 개선키로 결정. 이에 따라, 약 450만여 명의 실수요자를 위한 배·송전 장비의 교체·설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1,045MVA에 달하는 변전 설비의 설치 수요도 예상됨.

표2) 전력장비 주요 공급업체 현황

구 분	주 요 업 체	주 요 생 산 품	
해외 공급업체	Miura(일본), York Shipley(미국), Std. Kessel(독일)	보일러	
	GE(미국), Schneider(미국)	송전기	
	Kubota(일본), Caterpillar(미국), Siemens(독일)	발전기	
	Yuko(일본), Westinghouse(미국), Siemens(독일)	회로차단기	
	Cooper(미국), Tridelta(일본)	피뢰기	
국내 업체	해 외 라이선스 체결업체	Eagle Electric of the Phils(미국의 Eagle社와 체결)	스위치
		First Electric Dynamic Corps(영국의 Fedcor社와 체결)	송전기
		HW Electric,Inc.(대만의 HW社와 체결)	회로차단기
		Powerdisel Phils.Inc.(영국의 Ferkins社와 체결)	발전기 세트
	B O I 인센티브 수혜업체	Asea Brown Boveri	발전 축적기
		Super Manufacturing.Inc.	송전기
		Babcock-Hitachi Phils.Inc.	보일러 및 부품
		Philippine Electric Corporation	발전기, 배전기
		Fuji-Haya Electric Corporation	회로차단기
	순수 국내업체	Switchear Phils.Inc.	회로차단기
		Assistco Energy and Industrial Corp	보일러
		CIMECH Systems Construction.Inc.	보일러

자료: www.usatrade.com

책임 연구원 류재욱 (☎3779-6664)  
E-mail : jaeukkor@koreaexim.go.kr